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7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1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4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6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9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4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4,803	39.8	50,352	40.7	4,451
일본 부분	2,582	39.6	4,601	28.7	-2,019
일본 비중	4.7		9.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2020년 6월	2021년 6월	증감률
수출(백만¥, %)	4,860,301	7,222,039	48.6
수입(백만¥, %)	5,151,251	6,838,083	32.7
수지(백만¥, %)	-290,950	383,95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7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1,974	6,918	19,683	-3,761	11,348	348
한국 부분(억¥)	623	268	128	-105	128	18
한국 비중(%)	2.8	3.9	0.7	2.8	1.1	5.2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5월 13일, 6월 8일, 7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6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6월	2021년6월	증감률	2020년6월	2021년6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36,938	77,029	108.5	전체	2,565	9,300	262.6
방한 일본인	498	875	75.7	방일 한국인	122	800	555.7
일본인 비중	1.35	1.14		한국인 비중	4.76	8.6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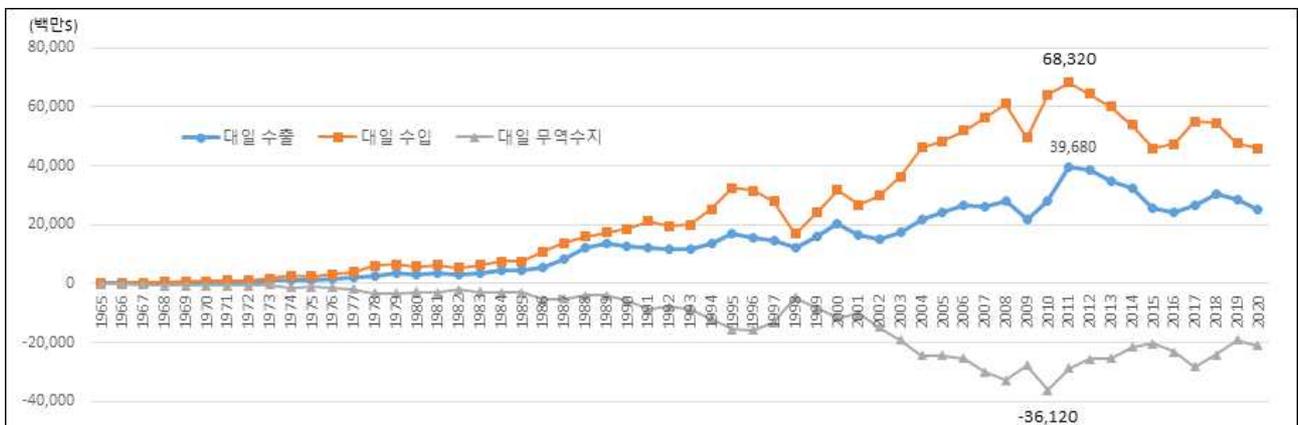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6월에는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9.6%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8.7%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4,803	39.8	50,352	40.7	4,451
일본 부분	2,582	39.6	4,601	28.7	-2,019
일본 비중	4.7		9.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6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하였고, 대일 수출은 동(同) 39.6% 증가하여 25.8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6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8.7% 증가하여 46.0억 달러가 되었음

-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44.5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0.2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7%였고, 수입 경우는 9.1%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6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10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6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6월(백만\$, %)			2021년 6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1,850	-18.0	-1,725	2,582	39.6	-2,019
1	광물성연료	193	-35.1	174	390	102.0	348
2	철강제품	214	-33.1	-182	318	48.2	-293
3	정밀화학제품	178	8.6	-144	211	18.2	-154
4	석유화학제품	86	-30.1	-69	181	111.1	-138
5	금속광물	89	38.9	54	177	99.8	102
6	전자부품	149	-1.4	-320	177	19.2	-383
7	산업용전자제품	116	10.2	-126	152	30.8	-115
8	농산물	89	-6.3	72	104	16.6	83
9	기초산업기계	56	-32.3	-110	88	58.3	-106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2	-22.7	-53	86	19.2	-4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6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6월(백만\$, %)			2021년 6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574	-7.9	-1,725	4,601	28.7	-2,019
1	철강제품	396	-29.1	-182	611	54.4	-293
2	전자부품	468	1.9	-320	560	19.6	-383
3	정밀기계	448	48.0	-394	526	17.5	-478
4	정밀화학제품	322	-10.6	-144	365	13.4	-154
5	석유화학제품	155	-51.2	-69	319	106.3	-138
6	산업용전자제품	242	6.7	-126	267	10.5	-115
7	수송기계	201	-12.2	-151	249	24.1	-190
8	플라스틱제품	179	-3.8	-120	213	19.3	-149
9	산업기계	155	-9.7	-97	201	29.5	-133
10	기초산업기계	165	-13.8	-110	194	17.1	-10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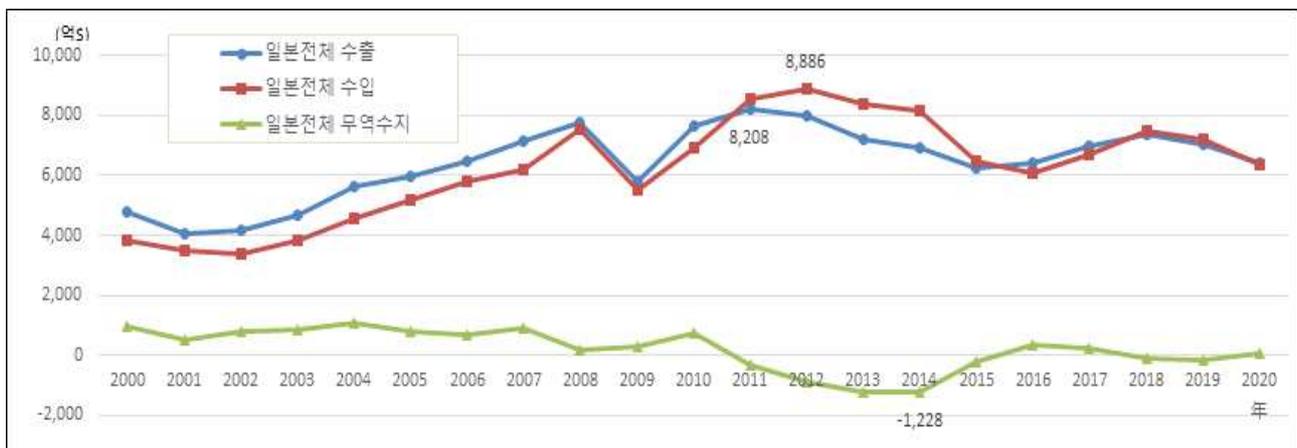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111.1%), 광물성연료(102.0%), 금속광물(99.8%) 등 10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106.3%), 철강제품(54.4%), 산업기계(29.5%) 등 10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상황

	2020년 6월	2021년 6월	증감률
수출(백만¥, %)	4,860,301	7,222,039	48.6
수입(백만¥, %)	5,151,251	6,838,083	32.7
수지(백만¥, %)	-290,950	383,95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7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부분품, 철강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하여 7조 2,22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비철금속, 철광석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2.7% 증가하여 6조 8,381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2,910억 엔 적자에서 3,840억 엔 흑자로 전환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7.3%, 수입의 48.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8,277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0%, 수입의 23.9%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對中) 무역적자는 486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8%, 수입의 0.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372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0%, 수입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157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6.6%, 수입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한(對韓) 무역흑자는 1,809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6%, 수입의 11.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흑자는 5,78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7%, 수입의 3.2%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9%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달러, %)			수입(백만달러, %)			수지(백만달러,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222,039	100.0	48.6	6,838,083	100.0	32.7	383,956	-
아시아	4,137,081	57.3	37.1	3,309,420	48.4	22.1	827,661	169.1
중국	1,587,356	22.0	27.7	1,635,920	23.9	17.6	-48,564	-67.2
홍콩	347,957	4.8	18.0	10,732	0.2	41.8	337,225	17.4
대만	507,331	7.0	27.8	291,663	4.3	25.7	215,668	30.8
대한민국	478,198	6.6	36.4	297,308	4.3	40.6	180,890	30.0
싱가포르	171,504	2.4	23.5	84,311	1.2	4.6	87,193	49.5
태국	308,910	4.3	98.7	241,048	3.5	22.0	67,862	-
말레이시아	141,989	2.0	58.1	174,342	2.5	25.7	-32,353	-33.8
인도네시아	128,972	1.8	101.9	150,102	2.2	33.0	-21,130	-56.8
필리핀	103,120	1.4	47.5	100,212	1.5	26.9	2,908	-
베트남	182,725	2.5	42.4	213,159	3.1	23.3	-30,434	-31.7
인도	115,725	1.6	118.4	56,012	0.8	47.6	59,713	297.4
대양주	171,371	2.4	36.2	469,461	6.9	41.0	-298,090	44.0
호주	125,523	1.7	55.5	411,799	6.0	49.9	-286,276	47.6
뉴질랜드	25,218	0.3	92.6	30,994	0.5	17.9	-5,776	-56.2
북미	1,431,916	19.8	87.1	882,542	12.9	22.6	549,374	1104.2
미국	1,345,605	18.6	85.7	766,732	11.2	27.4	578,873	371.6
캐나다	86,310	1.2	112.0	115,216	1.7	-1.8	-28,906	-62.3
중남미	258,459	3.6	52.4	313,800	4.6	40.1	-55,341	1.9
서유럽	774,277	10.7	50.0	898,840	13.1	27.3	-124,563	-34.4
독일	197,605	2.7	51.3	221,256	3.2	27.0	-23,651	-45.8
영국	111,466	1.5	69.1	60,830	0.9	41.1	50,636	121.9
프랑스	61,640	0.9	42.5	108,418	1.6	53.1	-46,778	69.7
네덜란드	115,162	1.6	57.4	25,848	0.4	26.6	89,314	69.3
이탈리아	44,636	0.6	64.4	117,405	1.7	24.2	-72,769	7.9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83,654	2.5	81.8	206,367	3.0	61.2	-22,713	-15.8
중동	187,812	2.6	106.2	614,084	9.0	139.9	-426,272	158.6
아프리카	77,469	1.1	5.8	143,569	2.1	93.1	-66,100	5659.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7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든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원료품(84.9%), 수송용기기(68.1%), 원료별제품(56.6%)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12.5%), 일반기계(8.7%), 전기기기(7.4%)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수송용기기(145.9%), 광물성연료(86.1%), 원료품(69.8%)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0.4%), 원료품(5.0%), 전기기기(4.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6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222,039	100.0	48.6	48.6	6,838,083	100.0	32.7	32.7
1 식료품	79,477	1.1	22.7	0.3	647,283	9.5	11.9	1.3
2 원료품	135,189	1.9	84.9	1.3	624,801	9.1	69.8	5.0
3 광물성연료	48,651	0.7	7.7	0.1	1,160,091	17.0	86.1	10.4
4 화학제품	884,910	12.3	39.5	5.2	809,727	11.8	11.9	1.7
5 원료별제품	862,105	11.9	56.6	6.4	710,222	10.4	35.0	3.6
6 일반기계	1,427,085	19.8	42.0	8.7	652,606	9.5	7.4	0.9
7 전기기기	1,268,185	17.6	39.9	7.4	1,094,815	16.0	28.1	4.7
8 수송용기기	1,502,122	20.8	68.1	12.5	273,798	4.0	145.9	3.2
9 기타	1,014,314	14.0	47.5	6.7	864,738	12.6	14.1	2.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7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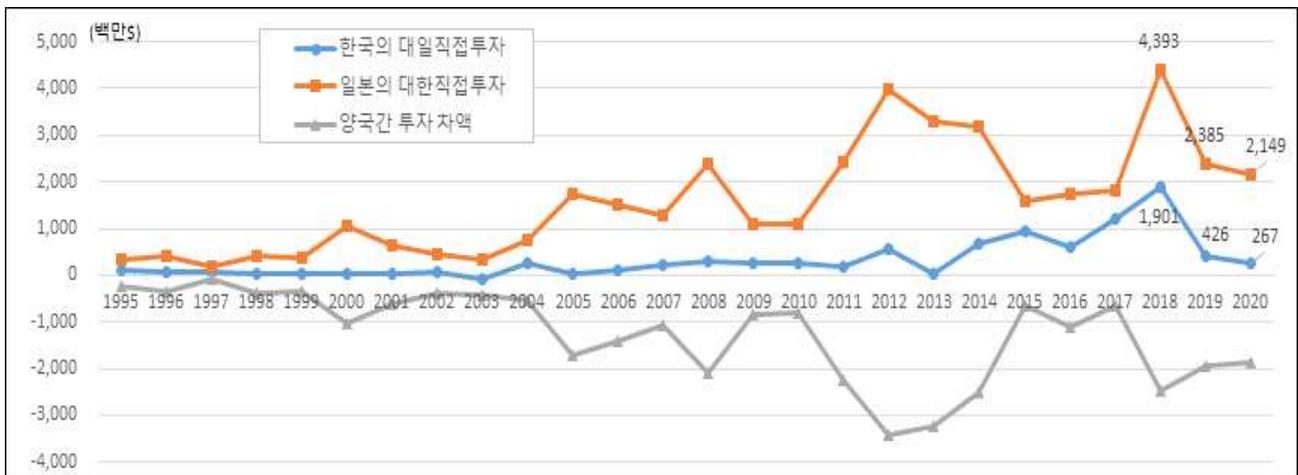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1,974	6,918	19,683	-3,761	11,348	348
한국 부분(억¥)	623	268	128	-105	128	18
한국 비중(%)	2.8	3.9	0.7	2.8	1.1	5.2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5월 13일, 6월 8일, 7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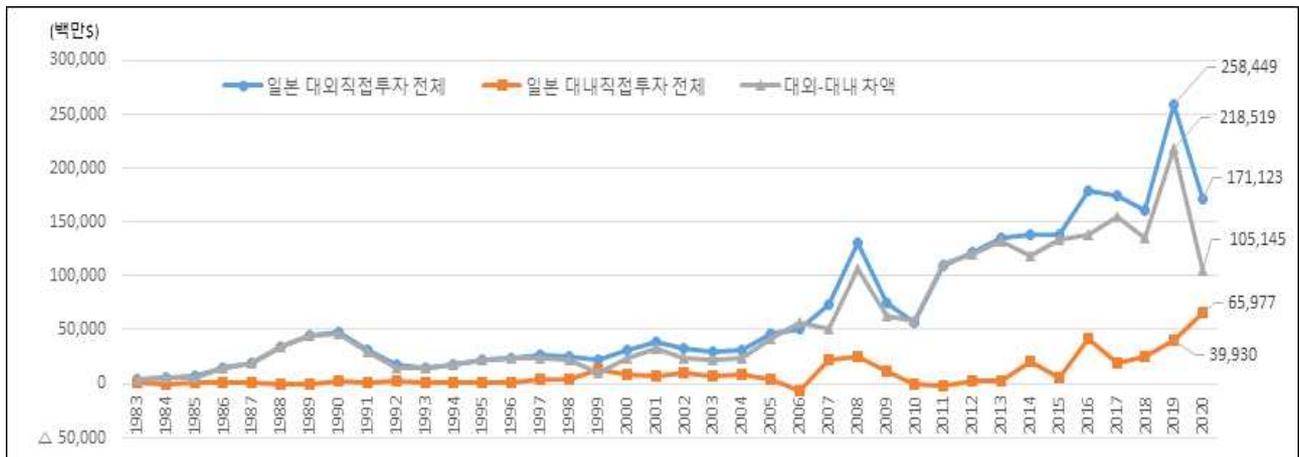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4월 19,683억 엔(실행 46,117; 회수 26,434)에서 5월 11,348억 엔(실행 35,494; 회수 24,147)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4월 128억 엔(실행 148; 회수 20)과 5월 128억 엔(실행 171; 회수 43)으로 동일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서 1.1%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4월에는 -3,761억 엔(실행 26,513 회수 30,274)으로 마이너스였으나, 5월에는 348억 엔(실행 25,030 회수 24,682)으로 플러스가 되었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4월 -105억 엔(실행 72; 회수 178)으로 마이너스에서 5월 18억 엔(실행 22; 회수 3)으로 플러스가 되었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마이너스 측면의 2.8%에서 플러스 측면의 5.2%로 되었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5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는 11,348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는 348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1,348억 엔(실행 35,494; 회수 24,147)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38.8%)와 북미(37.7%)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13.1%), 중남미(6.6%), 대양주(4.0%)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4,011억 엔), 싱가포르(1,931억 엔), 영국(979억 엔), 인도네시아(896억 엔), 중국(786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스위스(-1,265억 엔)와 프랑스(-54억 엔) 경우에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348억 엔(실행 25,030; 회수 24,682)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에서 지역별로 북미(1,146억 엔), 아시아(795억 엔), 중동(1억 엔) 등은 순투자가 플러스였으며, 유럽(-1,463억 엔), 아프리카(-57억 엔), 중남미(-48억 엔), 대양주(-26억 엔) 등은 순투자가 마이너스 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1,117억 엔), 홍콩(753억 엔), 싱가포르(385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4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11,348	100.0	348	100.0
아시아	4,405	38.8	795	228.4
중국	786	6.9	-367	-105.5
홍콩	14	0.1	753	216.4
대만	58	0.5	15	4.3
한국	128	1.1	18	5.2
싱가포르	1,931	17.0	385	110.6
태국	295	2.6	-45	-12.9
인도네시아	896	7.9	3	0.9
말레이시아	154	1.4	26	7.5
필리핀	59	0.5	-3	-0.9
베트남	203	1.8	—	—
인도	49	0.4	4	1.1
북미	4,283	37.7	1,146	329.3
미국	4,011	35.3	1,117	321.0
캐나다	273	2.4	29	8.3
중남미	751	6.6	-48	-13.8
멕시코	15	0.1	—	—
브라질	43	0.4	—	-
케이만제도	498	4.4	-57	-16.4
대양주	458	4.0	-26	-7.5
호주	362	3.2	-34	-9.8
뉴질랜드	62	0.5	1	0.3
유럽	1,485	13.1	-1,463	-420.4
독일	242	2.1	95	27.3
영국	979	8.6	-2	-0.6
프랑스	-54	-0.5	100	28.7
네덜란드	231	2.0	-56	-16.1
이탈리아	9	0.1	-5	-1.4
벨기에	99	0.9	150	43.1
룩셈부르크	577	5.1	0	0.0
스위스	-1,265	-11.1	54	15.5
스웨덴	36	0.3	0	0.0
스페인	29	0.3	1	0.0
러시아	14	0.1	—	—
중동	-43	-0.4	1	0.0
아프리카	7	0.1	-57	-16.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7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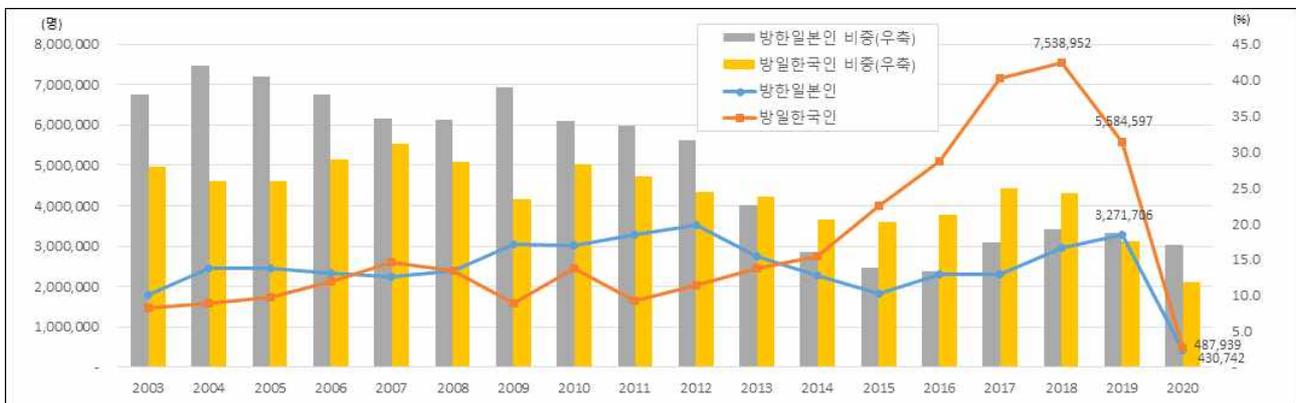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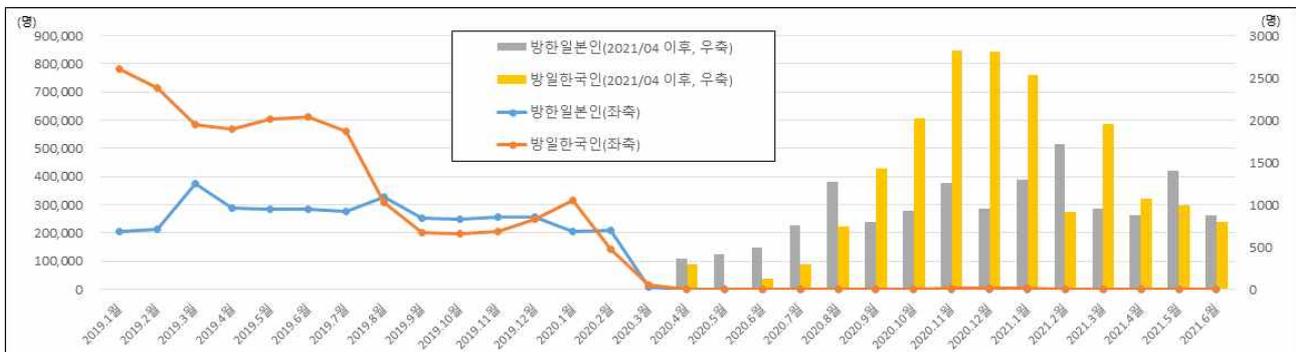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5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1,000명, 6월 8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6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6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6월	2021년6월	증감률	2020년6월	2021년6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36,938	77,029	108.5	전체	2,565	9,300	262.6
방한 일본인	498	875	75.7	방일 한국인	122	800	555.7
일본인 비중	1.35	1.14		한국인 비중	4.76	8.6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6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77,02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5%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87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7%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6월 1.35%에서 2021년 6월 1.14%로 미미하게 감소하였음
- 2021년 6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9,3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2.6%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5.7%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6월 4.76%에서 2021년 6월 8.60%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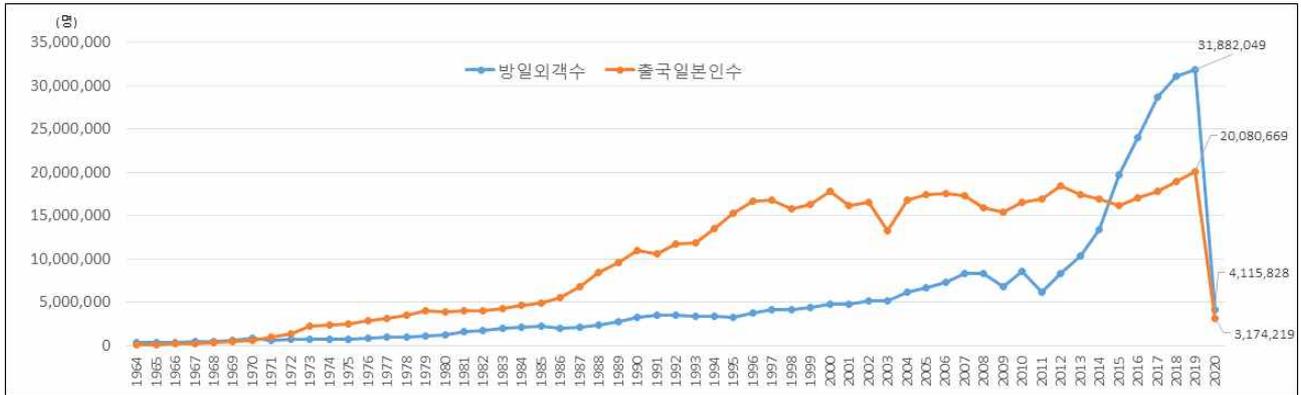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6월 상황

- <표10>은 2021년 6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증가하였음
 - 2021년 6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9,3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2.6%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80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55.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98.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66.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5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14.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5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677.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200명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782.4%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6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6월		2021년 6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2,565	100.0	9,300	100.0	262.6
한국	122	4.8	800	8.6	555.7
중국	334	13.0	2,000	21.5	498.8
대만	45	1.8	300	3.2	566.7
홍콩	7	0.3	50	0.5	614.3
태국	12	0.5	100	1.1	733.3
싱가포르	5	0.2	40	0.4	700.0
말레이시아	13	0.5	100	1.1	669.2
인도네시아	18	0.7	500	5.4	2677.8
필리핀	48	1.9	400	4.3	733.3
베트남	122	4.8	400	4.3	227.9
인도	69	2.7	70	0.8	1.4
호주	11	0.4	100	1.1	809.1
미국	136	5.3	1,200	12.9	782.4
캐나다	17	0.7	100	1.1	488.2
멕시코	3	0.1	80	0.9	2566.7
영국	30	1.2	300	3.2	900.0
프랑스	16	0.6	200	2.2	1150.0
독일	14	0.5	200	2.2	1328.6
이탈리아	8	0.3	100	1.1	1150.0
러시아	0	0.0	100	1.1	—
스페인	10	0.4	100	1.1	900.0
중동지역	28	1.1	100	1.1	257.1
기타	1,497	58.4	1,960	21.1	30.9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7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7월 19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0년 10-12월	2021년 1-3월	2021년 4-6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0	-4.7	-1.1	-1.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6	-1.9	-1.7	-0.6		0.2	2.3	2.7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0.4	5.2		8.2	20.7	23.6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0.5 -7.0	83.0 -1.6		88.0 1.5	88.3 7.1	87.5 9.9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8.5	9.1		11.3	12.1	14.6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1.8 -3.2	4.6 6.0		12.6 3.9	28.4 1.2	38.5 P 6.9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3.5	-1.0		3.4	15.8	21.1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0.7	26.0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751 -20.8	1,554 -28.1	1,490 -18.8	634 -14.3	477 -35.8	472 50.3	541 -30.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8	3.0	2.8		2.6	2.8	3.0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2.1 -0.8	-0.3 -0.4	P 4.6	1.2 -0.2	3.8 -0.4	5.1 -0.1	P 5.0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5,194 104.49	29,001 106.09	28,983 109.50	29,315 108.65	29,426 109.13	28,517 109.19	28,943 110.11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5월, 6월, 7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약세 상태로 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5월에 전월대비 1.9% 감소함

- ‘가계조사’ (5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2.1%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5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또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약세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긴급사태선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지출을 중심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동향에 따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3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1-3월기는 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0.5% 증가, 비제조업이 0.9%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의 착공은 보합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총 호수는 5월에 전월대비 0.9% 감소하여 연율 87.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4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1% 감소, 6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6% 감소, 5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7.8%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EU,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5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5월 대비 99.6%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5월에 전월대비 6.5%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5월에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6월은 전월대비 9.1% 증가, 7월은 전월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및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계보’ (1-3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3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6.0% 증가, 전기대비 5.6% 증가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63.2%,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10.9% 증가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전년대비 41.2% 증가,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1.6%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9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3월 634건, 4월 477건, 5월 472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6월에는 541건으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구인 등의 움직임에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5월에 전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여 3.0%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도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6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6월에는 전월대비 5.0% 포인트 상승하여 79.9%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엔고 추세를 보임
 - 주가는 29,000엔 대부터 27,900엔 대까지 하락한 이후 28,700엔 대까지 상승하였다가 28,200엔 대로 하락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10엔 대에서 111엔 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9엔 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대에서 -0.05%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8%(6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9.1%(6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5.9%(6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7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7월 19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또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등에 기반하여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오랫동안의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강인한 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2개 도현(都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4개 부현(府県)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계속해서 백신접종의 신속한 실행, 감염확대의 억제를 최우선으로 대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감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히 집행함
 - 앞으로도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예비비의 활용을 통하여 임기응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감과 더불어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저 없이 기동적인 매크로 경제정책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7월 16일 금융기관이 실시할 기후변동 대응 투융자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제도의 골자 초안을 결정하였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의 COVID-19 관련 동향

-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등중점조치 대상 지역 추가
 - 7월 27일 도쿄도의 COVID-19 감염자가 2,848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30대 이하가 67.8%로 젊은 층의 감염 확대가 현저해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7월 30일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오사카 4부현을 8월 2일에서 8월 31일까지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도쿄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선언도 8월 31일까지 연장함
 - 홋카이도, 이시카와, 교토, 효고, 후쿠오카의 5도부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새롭게 적용함
- COVID-19 백신접종에 대한 설문
 - 일본 국제의료복지대 등의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고 싶다 혹은 이미 1회 이상 접종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57.3%였음
 - 백신 접종에 관하여 좀 더 상태를 지켜보거나, 접종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소극적인 응답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그 이유로는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1.07.27., 2021.07.29.; NHK, 2021.07.30.; 닛케이신문, 2021.07.30.)

□ 일본의 경제 관련 정책

- ICT분야에서의 해외 전개 및 금융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지하기 위하여 ICT 분야에서의 해외전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와 7월 2일 ICT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와 용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책의 골자안을 확정함
 - 기후 변동 문제의 개선에 대한 투자나 용자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0%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 외에 이용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긴 당좌 예금과 관련되는 금리를 0%로 하여 마이너스 금리 부담을 회피함

- 일본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와 용자를 지원하는 자금공급책을 도입하는 배경은 해외 중앙은행들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정부의 탈탄소 관련 정책
 -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은 태양광 발전소를 2030년도까지 약 2천만kW 늘릴 방침을 나타냈으며, 국토교통성은 공항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230만 kW의 도입을 검토함
 -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조엔 기금의 투자내용을 검토하는 7월 8일의 경제산업성 회의에서 차세대 항공기와 차세대 선박 2개 분야의 예산이 상정되었음
 - 차세대 항공기의 경우 수소엔진연료기 개발, 기체의 수소연료 저장탱크 개발 등의 내용이며, 차세대 선박은 수소연료선, 암모니아연료선 개발 등의 내용임
 - 한편, 경제산업성은 7월 12일 2030년 시점의 각 전원 발전 비용의 새로운 시산을 지식인 회의에서 제시하였는데, 발전 설비를 새롭게 건설해 운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시산으로 태양광 발전이 최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아사히신문, 2021.07.07.; 산케이신문, 2021.07.08., 2021.07.12., 2021.07.16.; NHK, 2021.07.02., 2021.07.16.; 닛케이신문, 2021.07.16.)

□ 한일 관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균함도 관련 결의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음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은 균함도로 알려진 나가사키시 하시마 탄갱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업혁명 유산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 등을 언급하며, ‘전체상을 전하고 있지 않다’, ‘강제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기술하였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7.22.; NHK, 2021.07.22.)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탈탄소 관련 동향

- 탈탄소 특화 투자신탁의 등장과 탈탄소에 대한 인지도
 - 탈탄소에 공헌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이 일본 국내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음
 - 노무라에셋은 일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탈탄소 관련 투자신탁을 조만간 설정할 전망이다, 미츠이스미토모트러스트·에셋은 5월에 온난화 가스 삭감이나 흡수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였음
 - 카본뉴트럴에 대한 덴츠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카본뉴트럴에 대해 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4.6%로 나타났음
 - 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탈탄소 1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인지도 중 ‘자동차의 전동화’는 70.6%, ‘순환형 사회의 실현’에 대한 인지도는 65.2%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분야는 50% 미만으로 국민의 이해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탈탄소에 대한 대처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74%가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탈탄소에 대한 산업별 노력 및 위기감
 - 신전력(新電力)회사인 루프(Loop) 등은 7월 1일 ‘재생에너지 추진 신전력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음
 - 루프 외에 민나전력(みんな電力), 그린피플스파워(Green People’s Power), 자연전력(自然電力), 지구클럽(地球クラブ) 등 5개사가 단체의 이사 감사를 맡음
 - 에어워터(エア・ウォーター)는 도다공업과 공동으로 메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내년부터 실증 실험을 목표로 함
 - 에어워터 등에 따르면 새로운 제조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신에 리튬이온전지 재료 등으로 쓰이는 탄소 재료 카본나노튜브(CNT)가 부산물로 나옴
 - 도쿄가스는 7월 7일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메탄가스를 합성하는 메타네이션기술 실증 실험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함
 - 한편, 일본 철강업계와 화학업계는 탈탄소화에 대한 대처로 제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제품에 가격 전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7.01., NHK, 2021.07.05.; 산케이신문, 2021.07.07., 2021.07.21.; 요미우리신문, 2021.07.14.)

□ 에너지산업 관련 동향

- 환경채 발행 및 가상 발전소 진출 등
 - 도쿄전력홀딩스그룹은 2021년 첫 환경채(環境債, Green Bond: 용도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채권)를 발행할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모은 자금은 일본 국내외의 풍력발전 개발에 충당함
 - 2021년 4월 수급을 조정하는 전력을 매매하는 수급조정시장이 설립되어 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 VPP)가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며, VPP에 도쿄전력홀딩스, 간사이전력 등이 진출하였음
 - VPP의 활용은 유럽 등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며, VPP의 보급에는 축전지의 확대도 필요함
 - * 가상발전소는 점재하는 발전 설비나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괄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시키는 구조임
 - 세계의 에너지 회사들은 탈탄소로 경영 자원을 이행하고 있음
- 발전산업과 조선산업에서의 암모니아 활용
 - 발전사업자인 JERA(도쿄전력퓨얼&파워 및 중부전력의 공동출자회사)는 UAE 국영 석유회사와 제휴하여 암모니아를 국내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일본 자원개발회사 INPEX와 UAE 국영석유회사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현지에서 암모니아를 제조하면 이를 일본에 수입하여 화력발전사업자인 JERA가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수소연료 대비 비용이 저렴해서 대량 소비에서 실용화가 빠른 것으로 알려짐
 - 발전 분야에서는 JERA와 IHI 등은 8월부터 헤키난화력발전소(碧南火力発電所)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암모니아 혼소’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는 실증 실험 1단계를 시작함
 - 조선 분야에서는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이 미쓰이E&S머시너리(三井E&Sマシナリー) 등과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을 시작했음
 - 암모니아 연료선은 같은 열량의 중유나 수소를 실을 수 있는 탱크보다 크기가 작아 화물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으며, 액화 온도가 수소보다 낮아서 다루기 쉬운 것이 이점임
 - 한편, 암모니아를 탈탄소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입원 확보가 필수적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7.05., 2021.07.12.; NHK, 2021.07.08.; 산케이신문, 2021.07.29.)

□ 반도체산업 ·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 쇼와전공(昭和電工) 납축전지 사업 매각 및 TSMC의 일본 제조거점 계획 검토
 - 쇼와전공은 납축전지 사업을 연내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주력하는 반도체 소재와 시너지 효과가 적은 납축전지를 내려놓고 성장 투자로 축을 옮김
 - 쇼와전공은 고부가가치 반도체 관련 사업을 강화하여 매출액 대비 EBITDA(세전 이자지급전이익) 비율을 6%에서 2025년에 20%로 높일 계획임
 -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는 7월 15일 일본에 제조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음
 - TSMC는 7월 26일 온라인 주주총회에서 TSMC 리우더인(劉德音) 회장은 현재 일본에서 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과도 생산거점 건설로 교섭 중이라고 밝힘

- 닛산자동차의 영국 신규투자 및 토요타자동차의 공장가동 정지
 - 닛산자동차는 영국에서 전기자동차(EV) 생산 확대를 위해 새롭게 10억 파운드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신규투자는 전지업체 AESC와 영국 선덜랜드의 지역 시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함
 - 비철금속 대기업 스미토모금속광산은 자동차용 전지 부재인 정극재(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에히메 현 내에 새롭게 건설하며, 효고현의 사업소에서 설비를 증강함
 - 토요타자동차는 베트남의 COVID-19 감염 확대로 부품 조달이 막혀 아이치현의 공장 일부라인을 7월 29일부터 5일간 정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3000대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 토요타자동차는 7월 27일 다하라공장의 제3라인과 자회사인 토요타차체 요시하라공장의 제1라인과 제2라인을 며칠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약 5000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은 경자동차 사이즈의 소형 EV를 내년도의 빠른 시기에 판매할 방침을 분명히 하였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1.07.01.; 닛케이신문, 2021.07.08.; NHK, 2021.07.06., 2021.07.16., 2021.07.23., 2021.07.27.; 산케이신문, 2021.07.15., 2021.07.26., 2021.07.27.)